정의의 선택은 부정될수 없다

평양출판사
주체102(2013)년

우리 공화국이 지난 3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인 로선을 제시한것과 관련하여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반면에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병진로선에 대해 《핵무장시도를 통한 도발》이니, 《고도의 벼랑끝전술》이니, 《국제적의무위반》이니 하는 당치도 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극도에 이르고있고 이로 하여 주권국가의 응당한 자위적선택이 《도발》로, 《위반》으로 락인되고

유린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때문에 미국과 그에 추종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궤변의 허황성을 꿰뚫어보는 동시에 새로운 병진로선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견해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외곡비난하고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며 온갖 모략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의의 선택인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절대로 부정될수 없다.

민족최선의 선택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은 지난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핵, 경제병진로선을 채택》, 《북이 핵, 경제병진로선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략로선으로 채택한것은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른것》, 《핵, 경제병진로선의 채택은 단순히 선언이 아닌것》, 《간단하게는 법제화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고있는데서 확인》, 《더 중요하게 확인할수 있는것은 북이 이 병진로선에 대해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병진로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있다는 사실》, 《핵, 경제 병진로선은 북이 직접 언급하고있듯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으로 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고 핵보유를 법제화하게 된 불가피성과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립증해주는 실례들이다.

원래 병진이라는 말은 문자그대로 두가지이상의 일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함이 없이 동시에 다같이 틀어쥐고나아간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 말은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깊은 뜻과 의미를 가지고있다. 1960년대 미국이 까리브해위기를 조성하고 《북진》을 떠들

며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여 북침전쟁준비와 군사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던 당시의 정세하에서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였다.

공화국은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이라는 구호하에 미국과 추종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담보하면서도 경제건설을 추진해올수 있었다. 공화국이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대동란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기때문이였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최악의 시련이 겹쌓이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시기에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제시되였다. 미국의 북침핵위협소동 등으로 가중되는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전쟁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핵보유의 대업이 이룩되였다. 이리하여 주체의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강성국가건설에로 도약할수 있는 확고한 도약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러한 력사의 전통—병진로선의 궤도를 타고 보다 심화발전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이 제시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자주권

과 존엄을 엄중히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취한 민족최선의 정의의 선택이며 단호한 정치적결단이다. 그렇게 말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미 알려진바이지만 지난해 12월 12일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올해 1월 22일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였다. 그리고는 유엔 《제재결의》 2087호를 조작해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비법화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는 최첨단과학기술로 우주를 정복하고 비약하여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지향과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진행한 철두철미 평화적인 사업이였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한사코 군사문제와 련결시키면서 사태를 복잡한 국면에로 이끌어갔다.

이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2006년 10월과 2009년 6월에도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와 합법적권리를 금지한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조작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있은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때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그것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란것을 발표하고 《추가제재》니 뭐니 하며 반공화국소동에 광분하였다.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를 계기로 또다시 강도적인 유엔《제재결의》를 조작해낸것은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으로 격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구실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의 도화선에 기어이 불을 달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었다.

재미동포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공지구위성이 모두 7 143개나 되며 그중 인공지구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올린 로씨야(3 954개), 미국(1 926개), 중국(202개), 일본(167개)을 실례로 들면서 북에게만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지 말라고 함부로 강박하는것은 초등학교아이들이 들어봐도 억지이며 망발이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의 파렴치한 자주권침해행위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부득불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공화국은 제3차 지하핵시험의 주되는 목적이 미국의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것이였다고 선언하였다. 그것은 말그대로 평화적위성발사권리, 자주적발전의 권리마저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미국의 엄중한 침략책동에 대처한 정당방위성격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자기의 추종국가들을

발동시켜 보다 강도높은 제재를 강행하였다. 이어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핵전쟁에 불을 달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국이 북침핵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작성해놓고 그에 따라 수십년째 해마다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같은 각종 대규모합동핵전쟁연습들을 이름만 바꾸면서 끊임없이 벌려오고있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인하고있다.

사실상 조선반도처럼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위험천만하게 벌어지는 곳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이라고 하는 《림팩》, 《코브라 골드》,

《코프노스》 등은 기일이 1주일, 길어서 1개월가량이며 그것도 대체로 2년 또는 몇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훈련내용과 방식도 특정국가를 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반군사교류나 협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병종, 군종별훈련 그리고 해상구조와 재난구조훈련 같은것을 기본으로 하고있다. 그에 비해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의 합동군사연습들은 수십만명의 병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 기간도 수개월씩 되는데다가 훈련내용 또한 엄중하고 위험천만한것들이다. 지속성에 있어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북침핵전쟁연습은 정전

이래 오늘까지 60년동안 어느 하루도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여왔다. 정전이후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북침핵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은 공개된것만 해도 총 1만 8 000여차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 3월-4월에는 합동군사연습에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을 대량투입하고 남조선은 물론 영국, 오스트랄리아, 단마르크를 포함한 여러 추종국가무력까지 동원시켰다.

이것은 온갖 적대세력들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가장 로골적인 군사적도발행위이라는것과 워싱톤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이 변함이 없으며 최절정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공화국을 압살하고 아시아침략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한 지배주의정책이다. 오늘날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궁극적목적으로 한 대조선정책에 총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순간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을수 있는 시간이 흐르고있다고 정세판단을 내린 미국의 모략가들은 각 방면에 걸쳐 음모를 꾸미며 개입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중시하고 타고앉을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하고 조선반도를 통해 곧 실행을 꾀하고 행동에로 옮겼다. 특히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으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싸

일방위체계수립에 달라붙어 현지배비를 다그치며 여기에 남조선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있다.

현재 남조선과 그 주변에 집결된 방대한 전략핵무력은 임의의 시각에 선제공격, 전면전쟁에 진입할 태세에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의 교훈과 결론은 민족운명의 기로에서 옳바른 선택을 할 때 정치군사적역풍을 길들여 조선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담보할수 있다는것이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여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데 대한 공

화국의 단호한 결단이야말로 불가피한것이며 정당한것이다.

로씨야의 군사력사가인 쎄르게이 뻬레슬레긴이 인터네트통신에 올린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를 개발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이 한때 미국과 쏘련이 한것과 절대 다른것을 하는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핵무력건설의 정당성을 강조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새로운 병진로선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이 핵을 만능의 힘으로 하여 세계를 좌지우지해온 비뚤어진 국제질서에 파렬구를 낸 정의의 선택이 아닐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지금까지의 세계질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렬강들에 의해 좌지우

지되여왔다.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한 정치가가 오늘의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귀족과 보병노릇을 하는 농노로 갈라진 세계라고 할수 있다고 한것은 일리있는 주장이다.

원래 핵에네르기의 발견은 인류의 문명과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핵물리학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들은 자기들의 연구성과가 에네르기분야에서 인류의 문명발전에 공헌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는 배치되게 미국은 핵물리학의 연구성과들을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쟁수단으로 삼았다.

그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라는 흉악한 대량살륙무기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였다.

지금까지 핵은 렬강들의 독점물이였고 그것은 지배와 패권, 강권과 압제의 수단으로 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말그대로 핵은 인류에게 전쟁과 공포의 대명사로 되였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씌운 미국은 핵무기를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만능의 무기로 휘두르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저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결정하는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전횡은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미국과 기타 핵보유국들은 서로 대치되는 국가적리익이나 리념을 가지고있지만 다른 나라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핵보유에 그 나라의 생사존망이 달려있는

경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야합하여 필사적으로 가로막고있다.

19세기 유럽의 한 부르죠아정치가가 《영원한 련맹이란 없으며 오직 영원한 리익만이 있을뿐이다.》라고 말한바 있듯이 오늘의 핵대국들은 그 설교대로 움직이고있다.

미국의 리해관계에 따른 힘의 론리, 힘의 질서, 힘의 통치가 성행하고 핵무기를 만능으로 휘둘러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앞에서 성원국들의 자주적권리와 안전보장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할 유엔기구들까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기구로 전락되였다.

미국이 유엔거수기를 동원하여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조치를 걸고들며 《제재결의》라는것

을 두차례나 조작한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라는것이 이제더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진 국제기구가 아니며 핵전쟁을 불러오는 미국의 꼭두각시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하여 주되는 책임을 지고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손탁에서 전쟁을 불러오는 기구로 전락된것은 말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자주권을 지키고 발전을 이룩하려면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게 제힘을 키워야 하며 그리자면 자립적인 경제력과 함께 강력한 핵무력을 갖추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명백히 증시해주고있다. 핵강국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세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강성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밝힌것이 바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인것이다.

지금 미국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인 공화국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놓고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핵무력을 통한 도발》이니, 《국제법위반》이니 하며 핵보유를 법화한 공화국에 대하여 온갖 위협공갈과 압력을 가하는 한편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이른바 《대화》를 운운하고있다.

미국의 종이 되여 로보트처럼 움직이고 앵무새처럼 외워대며 민족의 존엄을 팔아

저들의 집권을 유지하고있는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의 책동 또한 반민족적인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한것이다.

핵을 보유한 적대국들사이에 어느 일방의 핵무장해제를 조건으로 하는 대화가 성립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사실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말하면 당초에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에서 발기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문제이다. 지난 시기 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조미기본합의문을 체결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화국에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핵위협을 제거하는 문제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

된 사활적인 문제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내세우고 1950년대말 미국이 남조선을 핵기지로 전변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며 아시아에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를 내놓았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하여 1980년대 중엽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남조선과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그의 성과적리행을 위해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것을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데 악용하였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있

는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 핵위협을 얼마나 강도높게 가하고있는가 하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명단에 올려놓고 핵위협을 가해오고있다. 최근들어 미국은 남조선군부세력을 사촉하여 조선반도수역에서 핵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려놓고 북에 대한 핵위협을 더한층 강화해나서고있다.

지난 5월 6일부터 서해일대에서 《적》잠수함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련합반잠훈련이 감행되였다. 여기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로스안젤스급핵동력잠수함 《브레머톤》호와 《이지스》유도탄구축함 2척, 반잠순찰기 《P-3C》를 포함한 미해군무력과 남조선해군의 구축함 등 수상함선 6척과 《214》

급잠수함, 직승기를 비롯한 작전장비들이 대량투입되였다.

5월 13일부터 14일까지는 동해와 남해일대에서 핵항공모함타격훈련을 기본으로 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다. 거대한 항공모함전투단의 타격훈련으로 조선동해일대는 하나의 대전장으로 화하였다.

사태의 진상을 바로 가려보는 군사전문가들은 지구상에 미국과 남조선이 벌리는 북침핵전쟁연습처럼 1년내내 상대방의 문전에서 도발적으로 감행되는 군사연습은 없으며 그것이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앞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태도여하에 따라 전면핵전쟁으로 넘어갈수도 있

고 혹은 일시 완화의 양상을 띨수도 있다는것, 그러나 강경책을 쓰든 유화전술에 매달리든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전 조선을 타고앉으려는 미국의 흉심은 결코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고 핵보유를 법화한것이야말로 미국식 《힘의 론리》, 핵을 만능으로 한 강권행위가 성행하는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응당한 선택이자 국제법상 합법적조치인것이다.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에는 《국가는 무장침공을 반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자위권의 견지에서 공화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선제타격하겠다는 미국의 횡포한 책동에 맞서 정당방위를 위해 핵무기를 소유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다. 또한 국가들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에 따라 미국이 핵문제, 조미관계문제와 관련하여 공화국과 체결한 각종 조약을 리행하지 않았으므로 핵억제력보유와 그 강화는 당연한것이다.

미국이 핵무기보유국들이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본정신도 무시하고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공갈을 일삼고 그것을 계단식으로 확

대하여 공화국의 자주권을 시시각각 위협하고있는것은 눈앞의 현실이다.

교훈은 무엇인가. 미국이 휘두르는 핵에는 오직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맞서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이다.

로씨야의 한 정치학자가 《내가 씹어삼키고싶기때문에 너에게 죄가 있다는것이다.》라는 강도적론리가 통하고 그에 따라 임의의 국가에 온갖 죄를 다 들씌울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현 국제질서하에서 《자주권을 지키고 폭격을 당하지 않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있다.》고 한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되여온 우리 나라 력사의 뼈저린 교훈은 새로운 병진로선의 정당성을 립증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거슬러보면 우리 나라는 외세가 몰아오는 끊임없는 전란의 풍운속에 시달려왔다. 고대로부터 고려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때에도 임진왜란 등 전쟁의 참화는 그치지 않았다.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우리 나라 땅에서 남이 벌린 청일, 로일전쟁이라는 두차례의 참화를 겪었다. 조선에 대한 외세의 탐욕이 우리 나라에 전쟁을 몰아온 객관적요인이였다면 보다 근본적이며 주관적인 요인은 당시 우리 나라가 힘이 약한데 있었다. 남들은 증기기관으로 산업을 발전시킬 때에조차 하늘소를 타고 옛 시나 읊조

리던 부패한 봉건통치배들이 국호를 고치기도 했지만 국력은 이름이나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였다.

결국 총칼로 무장한 침략자들이 달려들어 강도적인 조약을 날조해내고 온 강토를 집어삼켜도 그 어디에 항변 한마디 변변히 할수 없었던 우리 민족이였다.

일제와 친일파에 의해서는 나라의 왕후가 궁궐안에서 칼에 맞아죽고 미국과 친미파에 의해서는 왕궁이 습격당하고(춘생문사건) 짜리로씨야와 친로파에 의해서는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근 1년동안이나 망명객아닌 망명객생활을 해야 했으니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었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사대를 《민족보존의

무기》로 삼아야만 했던 이러한 수난의 력사, 변변한 화승총조차 없어 주권을 빼앗기고 국호마저 지킬수 없었던 지나온 망국의 력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수십만의 병력과 최신공격수단들이 동원되여 해마다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실전에로 번져지지 않은것은 공화국에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시적인 핵위협을 막아내는 승산있는 수단이 질량적으로 공고화된 핵무력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의 자위적핵억제력이 조선반도의 전쟁을 막아 남쪽전체의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 실린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공화국의 핵억제력의 위력에 대한 민족의 자부와 긍지를 피력한것이 아닐수 없다.

지금 미국 등 핵렬강들은 21세기 발전을 주도하게 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저들의 지배권을 위해 조선반도는 언제나 분렬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것을 추구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은 오직 핵무력과 경제력을 강화할 때에만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화해와 단합을 바라지 않는 외부세력들의 책동을 끝장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원동력인것이다. 그것은 통일조

국의 륭성번영을 굳건히 담보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대대손손 지켜나가는 근본초석으로 될것이다.

사회주의의 수호, 경제강국 건설의 보검

세계의 공정한 여론들은 《공화국이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고 핵무기보유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북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보장받고 그를 통해 경제강국도 일떠세우겠다는것이다.》라고 정당한 평가를

하고있다.

공화국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자주의 사상과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려는 필승의 기치이고 보검이다.

사상과 위업의 정당성은 그것이 대중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얼마만큼 보장해주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계급적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보장해주는 인류의 리상이다. 오늘날 인민대중의 자주적존엄과 리익을 보장해주는 사회주의사상을 지향하는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식《세계화》의 마수가 그 어느 지역

보다 가깝게 미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니까라과, 볼리비아, 에꽈도르, 뻬루 등 나라들에서 소수 특권계층의 리익이 아니라 대중의 리익을 중시하고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할것을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인사들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하는가 하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사회적변혁이 실현되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낡은것을 뒤집어엎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실천속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증시되고있다. 영국의 BBC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자유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자본주의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

회주의사상을 지지하였다. 여론조사에 참가한 15개 나라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국유화되거나 국가가 다수의 주식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가 제일 강한 사람들은 바로 자본주의를 복귀시킨 나라들의 주민들로서 로씨야에서는 77%, 우크라이나에서는 75%에 달하였다. 여론조사조직자들중의 한사람인 밀러는 《이것은 1989년에 베를린장벽이 해체된 후 자본주의가 결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일본의 《아사히신붕》과 도꾜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연단에서 도꾜대학 경제학부 교수 이와이 가쯔또는 《자본의 적은 자본주의

의 사상관점 즉 자유방임주의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전 프랑스대통령 싸르꼬지는 자본주의가 《만신창이 되였을뿐만아니라 그 기발대도 거의 부러졌다.》고 실토하였다. 한때 부르죠아혁명운동을 이끌었던 프랑스인들이 오늘에 와서 자본주의의 전도에 대해 제일 비관하고있다. 프랑스인의 43%가 자본주의경제제도에 대한 신심을 완전히 잃고 그것을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간주하고있다는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과 지향이 자라고있다는 증시로 된다.

바로 이러한 인류의 정의인 사회주의리념은 오직 힘으로써만 지킬수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오늘의 세계에서 외교적방법이나 호소로써 자기의 원칙

과 제도를 고수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미국의 달콤한 말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환상적으로 대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은 발칸반도와 중동지역의 일부 나라들의 실례가 잘 보여주고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리비아는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 미국과 서방의 압력과 침략책동에 맞서 비밀리에 독자적인 핵무기계획과 장거리미싸일개발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응당한 조치였다. 그러던 리비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것은 미국이 2003년에 일으킨 이라크전쟁이후였다.

당시 이라크는 미국의 군사적침공이 기정사실화된 때에도 자위적국방력을 강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기사찰단을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들어주는것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이로 하여 미국앞에 무장해제당한 이라크는 종당에 미국의 군사적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였다.

미국은 이라크전쟁후 저들이 거둔 성과를 과장하여 요란스레 떠들었다. 미국의 허장성세앞에 리비아는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엇서다가는 자기 나라도 이라크처럼 될수 있다고 우려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리비아지도부는 자체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생각을 한것이 아니라 핵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는것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참변을 막아보려 하였다. 미국과 서방은 이러한 리비아의 결심에 환성을 지르면

서 리비아가 국제공동체에 합세했다느니, 세계평화에 공헌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것은 리비아를 얼려넘기기 위한 한갖 기만술수였다.

미국의 요구대로 리비아는 핵사찰단을 받아들이고 자기 나라에 있던 핵관련설비들을 폐기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핵계획을 포기한 대가로 리비아와 약속한 경제적지원은 하지 않았다. 미국은 겉으로는 리비아와 관계개선을 표방해나섰지만 속으로는 수십년간 저들을 반대하는 정치를 실시해온 리비아의 제도를 뒤집어엎을 흉심을 버리고있었다. 미국의 요구대로 핵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면 큰 경제적지원이 날아들리라고 생각했던 리비아사람들은 점차 실속이 없는 미국의 약속에 환멸을 느

끼기 시작하였다.

2005년 리비아는 미국의 요구대로 핵계획을 포기하였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킬줄 모르는 미국대통령 부쉬를 더이상 믿을수 없는 인물》로 락인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말로는 이란 등 나라들과의 《핵협조》를 바란다고 하지만 리비아에 대해 취한 미국의 태도는 그것이 거짓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였다. 자기들이 속았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때늦은것이였다. 2011년 미국은 리비아가 미국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테로전문가》들을 밀파하였다는 거짓선전으로 세계여론이 발칵 뒤집히게 한 다음 리비아를 불의에 공습하

여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말았다. 이것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대가로 미국에게서 받은 대접이였다.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하고 손쉽게 제압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미국은 어리석게도 공화국에도 이러한 상투적수법을 끈질기게 써오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을 무장해제시켜 먹어보려고 이미전부터 시도하였다. 이라크전쟁후 미국은 조선이 딴 길을 택할 때까지 계속 압력을 가할것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북조선이 자기가 가던 길을 바꾸면 미국이 기꺼이 협력할것이라고 추파를 던지는가 하면 어용나팔수들은 여기에 곡조를 맞추어 공화국의 자주적길에 차단봉을 내리려고 여론을 오도하여왔다. 미국은 리

비아의 경우가 그 무슨 모델로 된다고 떠벌이며 마치 공화국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는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였다.

그들은 《북조선이 핵프로그람을 페기하면 얼마나 많은 대가가 차례질지 깜짝 놀라게 될것》이라고 희떠운 소리를 하며 어리석게 놀아댔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에 불과한것이고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흉심의 발로인것이다.

사람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가장 과학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공화국에서는 전체인민이 혁명적인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

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대결전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환경속에서 미국과 직접 맞서있는 공화국이 사회주의길을 변함없이 걸을수 있는것은 력사의 기적이 아닐수 없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사상과 위업을 삶의 요구로, 본분으로 여기고있으며 주체의 조국을 목숨바쳐 결사수호하려는 신념은 더욱더 억세여지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회주의야말로 공화국인민들 스스로 선택한 삶의 요람이며 생명이고 생활이며 미래인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미국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공화국의 신념과 의지의 과시로 된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공화국이 경제건설에 큰 힘을 넣어 하루빨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한 강위력한 보검이다.

미국과 그에 추종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여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가 군력강화에 돌려졌으며 인민이 허리띠를 조여야하는 가슴아픈 상황이 지속되게 되였다. 이로 하여 공화국이 입은 인적, 물적피해액은 2005년까지 집계된것만 해도 무려

64조 9 598억 5 400만US$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사회주의건설의 단계들마다 악랄하게 감행되여온 미국의 전쟁도발책동과 침략위협 등에 의한 공화국인민의 정신적압박감과 정치도덕적, 문화적피해는 돈으로 다 계산할수 없는것이다.

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에 의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위한 공화국의 평화적인 노력은 더욱더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경제와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제기술발전수준에 의하여 사회발전과 인민생활문제가 크게 좌우되는 현시대에 주권국가에 대한 경제기술적봉쇄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빼앗는 극악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력사와 현실은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제건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핵강국이 되면 강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에 자금과 로력을 총집중함으로써 비약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는 핵무기와 우주로케트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은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는 사업도 적극 추동할수 있게 한다.

공화국에는 튼튼한 원자력공업이 있으며 무진장한 우라니움자원과 세계가 경탄하는 핵기술인재력량이 있다. 공화국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에 의거하여 핵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공화국에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고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군사적힘이 갖추어져있기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도 마음먹은대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으면서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한다는데 새로운 병진로선의 참다운 우월성이 있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로선을 제시하면서 조미전면대결전에서의 승리를 락관하며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이 마련된 지금 공화국은 전체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

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에 내세우고있다.

공화국은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은 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승리와 전진의 표대》라고 주장하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혁명적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혁신적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천백배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가까운 앞날에 사회

주의부귀영화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것》이라고 선언해나섰다.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틀어쥠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전략적인 륙상 및 해상통로를 가지고있는 지정학적유리성을 활용하여 세계를 움직이고 새로운 경제번영을 이룩하는 시대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조선은 핵시험을 통해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 조선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 《북조선은 핵보유국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무한한 의미는 마술과도 같이 북조선에 무한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줄것이다. 이제부터 시련과 난

관은 있어도 끝이 짧고 일시적인것이 될것이다.》 …

력사의 시계가 쉽없이 돌아가며 조선반도의 격변하는 새로운 력사를 창조한다. 지금 서유럽중심의 지배체제에서 그 중심축이 조선을 둘러싸고 아시아로 이동하고있으며 낡은 지배체제의 사슬은 끊어지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하고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에 이어 성공적으로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은 공화국의 지위를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정시켰다. 공화국이 핵과 위성을 당당히 보유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를 둘러싼 세계정치구도, 력량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지각변동과도 같은 특대사변

인것이다.

특히 《핵》문제를 구실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전면공세를 가하고있는 시기에 가장 민감한 핵무력건설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을 제시한다는것은 누구나 해낼수 있는것이 아니다.

급변하는 정세하에서 핵보유를 단행하고 전략적로선화하는것은 민족의 천만년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과 어제와 오늘, 래일을 하나로 련결시켜보면서 심오한 전략전술적판단을 내릴수 있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과 강철의 담력을 지닌 령도자만이 수행할수 있다. 그것은 대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여 최후승리를 안아오

는것과도 같은 탁월한 령도예술이다.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과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항구적인 전략적로선—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책제시의 바탕에 거대한 산악처럼 놓인것은 민족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통일성업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이다.

바로 여기에서 온 민족은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민족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안아올 승리의 그날을 확신하고있다.

정기렬재미동포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

문 《통일뉴스》에 낸 글에서 《오늘 지구촌정세는 조선에 달렸다.》, 《오늘 세계정세는 리유여하를 막론하고 결국 북 혼자 미국주도의 <제국주의깡패국가>들을 때려잡는 상황으로 바뀐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미국과 북의 대결은 미국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것》, 《북을 건드린다는건 노한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려보겠다는 철부지같은 어리석음》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전쟁에서 치러야 할 미국의 대가에 대하여 《미국이 치러야 할 뼈저린 대가란 북과 맞붙은 전쟁에서 패하는것》을 뜻하며 《미국은 패전하여 가슴치며 후회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북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될것》, 《북이 조국통일

전쟁을 단숨에 끝내는 종전의 날, 북에게는 승전국의 전후처리가 있을것이고 미국에게는 패전국의 항복절차가 있을것》이라고 전한것은 그것을 립증해주기에 충분한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켜나가는 길에 민족의 생명이 있고 존엄이 있으며 통일강성조국의 래일이 약속되여있다. 그것이 현실로 부각되는것을 세계가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것이다.

정의의 선택은 부정될수 없다

집 필 김 혜 련
장 정 박 봉 혁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6월 5일
발 행 주체102(2013)년 6월 10일

ㄱ－1152ㄷ